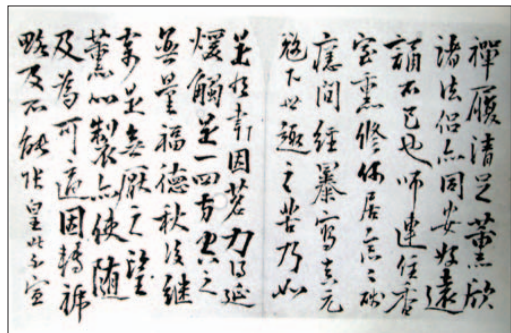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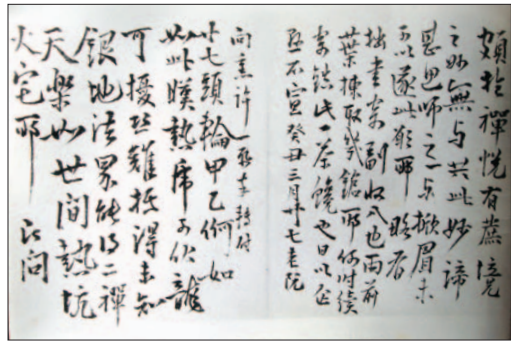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설사병으로 탈진... 차의 힘으로 생명연장”

〈완당전집〉(여초의) 37신의 추사 편지는 〈여초의〉 36신에 이어 보낸 편지인 듯하다. 이는 응송스님의 연구 자료 속에 들어 있던 추사의 친필본 간찰 도판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여초의〉 37신과 그 내용이 같다. 다만 사진 도판 자료에는 “27일 두륜산 샘물의 감을 따져보자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二十七頭輪甲乙如何)”라고 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완당전집〉(여초의) 37신에는 “二十七頭輪甲乙如何”이 결락되었을 뿐 아니라 대흥사 대웅전의 원고 글씨에 대한 비평도 생략되었다. 따라서 이 편지는 1853년 2월 27일에 보낸 〈여초의〉 36신에 이어 보낸 편지이고, 〈여초의〉 36신의 하단인 원고(이광사)의 글씨 서평의 내용은 〈완당전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임을 드러낸다. 특히 추사가 과전에 머물던 시기의 일상적 단편을 잘 드러낸 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완당전집〉(여초의) 37신의 추사 편지

것은 싫증이 나지 않는 바램입니다. 향후이 만든 차도 인편에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마침 돌아오는 인편에 대략 적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만. 노안 (대흥사) 대웅전 편액의 원고(이광사)글씨를 요행히 열람해 보았는데, 이는 천박한 후배의 글씨라 논변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고가 자처한 것으로 논한다면 크게 전해들은 품문만은 못하고, 조송설의 과구에 추락됨을 면하기는 어려워져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원고 자신이 기대한 것이겠습니까. 더욱 서법이 지남한 것이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만약 선종으로서 말한다면 바로 하백

종과 같습니다. 하백이 사자후를 토하니 사람들이 번번이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二十七頭輪甲乙如何 如此 熱虎可伏龍可獲 恐難抵得 未知銀地法界能得二禪天樂 不如世間熱坑火宅耶 卽問禪履清足 薰欣製法侶 亦同安好遠誦不已也 師連留香室 薰修何居 念念 賤糲間經舉 眞元放下 世趣之苦乃如是耶 幸因若力得延緩觸 是一四方空之無量福德 秋後繼寄 是無厭之望 薰製亦使隨及爲 可適因轉轉略 及不能惶姑不宣 老阮 大雄扁圓嶠書 幸得覽過 是非後輩淺薄者所可能辨 若以圓嶠之所自處者論之 大不如傳聞 未免墜落趙松雪 41中 不覺 然一笑 豈圓嶠之自待者耶 益知書法之至難而未易下語也 若以禪宗言之 卽一荷澤宗 荷作獅子嗥 人輒震 者何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 관악산 줄기에서 나는 샘물은 그의 음다 풍류를 만족시킨 듯하다. 초의와 함께 차를 마시면 샘물의 감을 논하고자 했던 추사의 품천(品泉) 식견은 제주에서도 다듬었던 일이었다. “그 사이 설사병을 만나 원기가 다 탈진되었던” 그는 “차의 힘으로 생명(緩觸)을 연장했다”고 있다. 이 무렵 초의는 일로향실에 머문 듯, 일로향실은 초의의 실명(室名)으로, 차를 보내준 초의에게 보답의 증표로 보낸 것. 1844년 물으로 돌아가는 소치 편에 이 글씨를 써 보냈던 추사는 이 글씨가 초의의 수행처에 어떻게 걸렸는지 궁금해 하였다. “일로향실” 차 향기 가득한 초의의 수행처의 선미 가득한 풍경을 잘 드러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참선으로 생활 포교

“국민 행복한 날 오길”

대효 스님 (안성 활인선원장)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경제난, 취업난,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 들어 불교계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템플스테이, 명상, 불교 상담 등을 통한 치유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재가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해 수행자 스스로 고(苦)의 실상을 살펴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선승(禪僧)이 있다.

대효 스님은 사찰에서 ‘수련회’란 명칭조차 생소했던 시절인 1976년부터 매년 ‘삼매 체험 선 수련회’를 시작, 현재는 단기출가를 비롯해 죽염과 따뜻한 물만 마시는 금강단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템플스테이와 비교할 때 스님의 프로그램은 제법 척박지만 선원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 재가자 1만 6000여 명이 거쳐 간 것으로 추정된다. “간화선 참구는 어린이들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스님은 1978년부터 어린이불교학교를 매주 일요일 개최했고, 1982년에는 원명유치원을 개원하는 등 새싹포교의 싹을 틔웠다.

이밖에도 스님은 지난 4월부터 경제난, 가정불화 등으로 괴로워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苦) 땀 캠프’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에도 선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불교 수행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수행으로 알려져 있는 간화선이지만, 대효 스님은 간화선 참구를 쉽고 재미있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새로운 ‘조사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안성 활인선원에서 대효 스님을 만났다.

가진 게 없는 것, 소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조금도 절망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고치려고 하니깐 바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속이 터지고 주제를 못해 자살하고 그러는데 그건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허약했던 청년, 참선 용맹정진하다

대효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교육자가 꿈이었지만, 체질 탓에 의지도 약하고 갈등도 많아 꿈을 이루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스님을 좋게 봤던 화주보살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여름방학동안 절에서 머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흔쾌히 절에 따라간 대효 스님은 즐거운 생활을 했다.

어린 대효 스님은 매일 밥 먹고 잠자고 흐르는 계곡물을 구경했다. 가끔 그 절에 있던 선객인 총무스님의 심심찮게 들려주는 얘기 즉 법문 듣는 것이 또한 일과였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노라니 그렇게 시월할 수가 없었다. 신선놀음과도 같았다. 그렇게 한 달이 후딱 지나갔다. 집에 돌아오자, 대효 스님은 자신이 변했음을 감지했다. 평소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아버지를 존경해오던 스님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턱없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달 간의 신선놀음이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스님은 곧 출가를 결심했고, 낱짚을 받은 후 야간열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별이 총총히 뜬 어두운 밤, 스님은 사립문 밖까지 나

1976년부터 제주·안성서 재가자 참선지도도받은 수행자만 1만 6000여명 어린이에게 참선 지도해 본래면목 일깨워 축원 폐지·주말 법회 등 불교 현대화 앞장 지난해부터 일반인 대상 무료 캠프 열어 “고맙 캠프 확산해 전 국민 힐링 했으면”

인간은 본래 깨달음 존재...바로 보아야 현대인들이 참선정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효 스님은 “전통적인 계급차별의 문화나 윤리 도덕이 붕괴돼 가고 있으나 새로운 가치체계의 형성은 미흡해 문화, 윤리적으로 가치 대립이 극심한 시기”라고 현대를 진단하며 “현대에는 윤리 도덕대신 개인의 자율에 의해 굴러가는 사회다. 그 말은 모든 개체가 존중될 가치가 있다는 뜻이며, 그 가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깨달음은 조작하는 것도, 고치는 것도 아니며 미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은 참



제주 원명유치원 어린이들의 ‘동자승 체험 30일’ 식발식이 열린 가운데 머리카락을 완전히 자른 한 어린이가 스님의 머리를 만져보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다.

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귀의처이자 안심명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우리사회가 얼마나 불안한지. 갈등이 심하고, 생을 포기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자기가 있는 곳이 최상의 상태이며,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구경처(究竟處)라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서지 않으면 불교를 위한 불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외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깨달음이란 상근기 수행자들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대효 스님은 누구나 깨달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깨달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며, 진실이 진리이며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깨달음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완전무결한 지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주인인지 모르다 보니 간혹 사고가 제한을 받아요, 더 넓은 생각을 못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모든 걸 집중해요. 그래서 결국 나라 존재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갖지 않은 것,

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지금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별빛 아래 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곧 “가보라”고 말했다.

문경 김룡사에서 행자생활을 하는 동안 대효 스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한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걸어서 두 시간 남짓 걸리는 암자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있었다. 한국 최고의 선승인 서암 스님이었다. 대효 스님은 매일 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고, 스님 밑에서 공부하기를 청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이 서암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했다. 낮에는 일만하고 저녁에는 정진 하는 서암 스님의 하루 일과를 좇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몸도 약하고 일도 해보지 않았던 대효 스님은 스승의 일을 돕기보다는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래서 무자 화두를 쓰는 일념으로 일을 시작했다. 잡념이 끼여들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갔다. 하루가 10년 같이 느껴졌다. 도중에 화두를 뇌보기도 했다. 온몸의 세포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고, 다시 화두를 들었다. 그렇게 5~6년간 서암 스님을 시봉하며 살았다. 서암 스님을 은사로서 득도 한 대효 스님은 서암 스님을 비롯해서 성철 스님, 향곡 스님, 경봉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 문하에서 수행하고 참방했다.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 입 증 안 내 ◆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청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 (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에게실 055)364-4747
 - 2) 입종 후 발급증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우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원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승정원	중앙종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고 문 석홍섭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장 석법경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철오			
부 회 장 석무겸					
총무원	호계원	문화원	감사원	포교원	기획원
총무원장 석혜오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장 석철산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장 석우암
총무부장 석윤오			부 원 장 석법호		부 원 장 석법승
재무부장 석범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14기 영남(통도소리) 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호소리, 질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 도량서,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 중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문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